

■ 격돌! 4·9 총선 현장

박주선 전국 최고 득표율에 도전

광주 동구



박주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통합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곳이다. 현재 박 전 의원을 포함, 한나라당과 평화통일가정당 후보 등 모두 5명이 본선에 뛰어들 전망이다. 박 전 의원과 자웅을 겨룰 만한 상대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거쳐 지난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중량감과 특유의 친화력을 무기삼아 표발을 누비고 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전·현직 지방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유력인사들의 확고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선거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호남출신 정치인으로서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발전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인물론'으로 승부를 낼 계획"이라며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 본선 상

■ 광주 동구 출마 예정자

					
이름	박주선	김태욱	김공수	구봉우	조방현
나이	58	59	56	59	36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한국사회당
경력	제16대 의원	전 광주케이블TV 대표이사	세일로신원 이사장	중앙일보 시사지 호남지사장	제16대 총선 출마

박주선 '인물론'에 김태욱 "토박이 밀어달라"

김공수·조방현·구봉우 후보도 전의 불태워

대를 기다리고 있던 김태욱 전 광주케이블 TV사장은 광주시립극단장, 광주문화예술진흥위 소위원장 등을 지낸 경력,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본선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광주지역 토박이로서 동구를 가장 잘 아는 후보,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

로서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구에서는 이와 함께 김공수 평화통일가정당 후보가 표발을 다지고 있으며, 조방현 한국사회당 후보와 무소속인 구봉우 후보가 각각 총선을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강운태 - 지병문 4년만에 '리턴매치'

광주 남구

남구는 현역인 통합민주당 지병문 의원과 무소속인 강운태 전 장관의 리턴매치가 벌어지는 곳이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수성에 나선 지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기반으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지 의원은 특히 이번 총선이 그동안 자신을 옥아매 왔던 '탄들이'라는 이미지를 깨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지 의원은 "이번 선거는 구시대 정치인과 새 시대 정치인과의 싸움"이라며 "한나라당에 맞서려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13명의 경쟁 예비후보를 모두 꺾고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후보로 나서는 강 전 장관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탄핵' 역풍을 맞아 지 의원에게 아쉽게 패배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와신상담, 설욕을 버리고 있다. '남구의 맹주'로 불릴만큼 탄탄한 조직과 인지도, 바

■ 광주 남구 출마 예정자

					
이름	지병문	노영복	공석운	강운태	강도석
나이	54	65	34	59	53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무소속
경력	17대 국회의원	조선대 자연과학대 생물학과 명예교수	세계평화청년연합 지문위원	전 내무부장관	전 광주시의원

강운태 "꼭 민주당" 지병문 "탄들이 이미지 깰것"

노영복·공석운씨도 출사표...강도석 선전 여부 관심

다 지지세를 자랑하는 강 전 장관은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강 전 장관은 "광주시장과 순천시장, 내무부장관을 지내며 쌓아온 경험과 능력, 인적 네트워크를 남구 발전을 위해 쏟아붓겠다"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것을 걸것

다"고 말했다. 남구에서는 이밖에 노영복 조선대 명예교수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으며, 평화통일가정당에서는 공석운 세계평화청년연합 중앙위원이 표발을 다지고 있다. 무소속 후보로 나선 강도석 전 시의원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홍행기자 redplane@

강기정 힘겨운 예선 뚫고 수성 나서

광주 북구갑

강기정 의원이 12명의 경쟁자들과 막판 추격을 따돌리고 통합민주당 공천을 확정, 수성에 나선 지역구다.

전직 장관·대학 총장·전직 기자·의사·변호사 등 이름이 오르내렸던 예비후보들도 통합민주당 공천 확정으로 대다수가 뜻을 접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후보군도 한나라당·민주노동당·평화통일가정당·무소속 후보 등으로 압축된 상태다.

면접·서류심사, 후보 압축,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맞대결 등을 거쳐 예선전을 통과한 만큼 본선에서 우세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강 의원은 "민주당 공천은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광주와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완전한 의원이 된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며 조심스럽게 밝혔다.

새 정부 출범 바람을 업고 뛰고 있는 한나라당 이기연 후보를 비롯, 진보 세력 건설을

■ 광주 북구 갑 출마 예정자

					
이름	강기정	이기연	이봉훈	최한규	김경진
나이	43	55	35	49	41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경력	국회의원	전 대통령직 인수위 지문위원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	선문대 초빙교수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무소속 김경진 '참신한 법률 전문가' 부각 젊음총 공략

한나라 이기연·민노 이봉훈·가정당 최한규씨도 분주

기치로 내건 민주노동당 이봉훈 후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후보가 어떻게 겨룰지도 관심거리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개혁공천 칼날이 무더지면서 '공천=당선'으로 보지 않는 지역

민들이 많아졌다"면서 "참신한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30~50대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화통일가정당 최한규 후보도 "가정이 행복할 나라를 만들겠다"며 유권자들을 파고들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

'북구 발전 적임' 유권자 선택 관심




광주 북구를

광주 북구를 선거구는 김재균 전 북구청장이 탄탄한 지역 기반과 문화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우며 통합민주당의 공천권을 거머쥐면서 여의도 입성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 분석이다. 김 후보는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예선을 치른 만큼 다소 함성을 들리며 본선에 대비하게 됐다.

김 후보는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의 추격에 고전했지만 여론조사 맞대결에서 격차를 벌리는데 성공해 본선 참가 티켓을 획득했다.

북구청장을 지내며 지역 구석 구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꾼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김 후보는 "더욱 낮은 자세로 다가가면 유권자들이 판단해주시길 거라 기대한다"면서 "북구청장 재직시 주민을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목소리가 반영된 광주의 비전을 제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3선을 목표로 했던 김태홍 의원이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현역의원 배제기준을 넘

■ 광주 북구 을 출마 예정자

					
이름	김재균	김천국	김현정	고수일	양길문
나이	55	50	36	52	36
소속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통일한국당	평화통일가정당
경력	전 민선 2·3기 구청장	전 한나라당 북구 을 당협위원장	민주노동당 광주시 을 북구여성위원장	건설업 경영	남북통일운동권 민연협 중앙위원

김재균 "광주 비전 제시 지역민 선택 받겠다" 본선 대비

김태홍 공천 탈락...김천국·김현정·양길문씨 표발 누벼

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한나라당·민주노동당·통일한국당·평화통일가정당 등이 김 후보와 경쟁할 태세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천국 당협위원장이 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만큼 여권 이점을 활용한다는 목표로 뛰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시장

북구여성위원장을 지낸 여성정치인 김현정 후보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까지 챙기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노동총을 지지 기반으로 표발을 누비고 있다. 평화통일가정당 양길문 후보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중국 제일의 명산 황산

가장 천리마고 가장 경신축의는 MBC문화탐방으로

황산·장가계

유인 왕주

전세기 소요시간 1시간 30분

● 왕주 - 황산·장가계 1시간 30분

● 왕주 - 황산·장가계 1시간 30분

광주전남지역여행사 문의전화: 062-226-6070

2008년 4월 22일 ~ 5월 10일 (10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2008년 4월 22일 ~ 5월 27일 (16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 왕주(신비 소주)